

대전 분양가 평당 1700만원 돌파... 1년새 166만원 올라

2월말 기준 평균 10.67% 상승... 충남·충북도 '경풍'

대전지역 부동산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은 고공행진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아파트 m²당 평균 분양가격은 521만원으로, 전월대비 6.54%, 전년동월대비 10.67% 경풍 뛰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른 탓이다.

1724만원으로, 1700만원을 넘어섰다. 1년 새 평당 166만원이 오른 셈이다. 18일 주택도시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2월말 기준 대전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m²당 평균 분양가는 521만 7000원을 기록했다. 이를 3.3m²(평)로 환산하면 1724만6000원이다. 이는 전월대비 m²당 32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특히 지난해 2월 대전 아파트 분양가는 m²당 471만4000원으로 3.3m²당 약 1555만원이었다. 1년 사이 3.3m²당 분양가격이 약 166만원이 오른 것. 분양가격지수는 213.8로, 전월대비 6.54%, 전년동월대비 10.67% 각각 상승했다. 분양가를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60m²이하의 m²당 평균 498만 8000원, 60m²초과 85m²이하의 545만

2000원, 85m²초과 102m²이하의 635만 8000원, 102m²초과는 934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세종의 m²당 평균 분양가는 공급이 13개월째 전무한 상태로, 사실상 분양가 산정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충남의 m²당 평균 분양가는 365만6000원으로, 전월대비 4만원이 상승했고, 전년동월보다 9만8000원 올랐다. 분양가격지수는 172.9로, 전월대비 1.10%, 전년동월대비 2.77% 상승했다.

아파트 규모별 60m²이하의 m²당 376만 1000원, 60m²초과 85m²이하의 363만 7000원, 85m²초과 102m²이하의 401만 7000원, 102m²초과는 43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충북 민간아파트 m²당 평균 분양가는 354만원9000원으로 전월보다 1.47%(5만1000원) 올랐고, 전년동기보다는 10.60%(34만원)나 경풍 뛰었다. 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m²당 평균 분양가격은 2월말 기준 536만6000원으로 전월대비 1.57%, 전년동

월대비 13.50%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9272세대로, 충청지역은 대전 776세대, 충남 1290세대, 충북 1675세대가 신규 분양됐다. 지역 분양업체는 "인건비, 원자재값을 비롯해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승했다"며 "향후 분양되는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배 기자 y2k425@dailycn.net



대전농협, 도농교류 농촌체험 대전농협이 고향주부모임 대전시지회와 도농교류 농촌체험활동에 참석했다. 양 기관은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에 위치한 냉이·달래 재배 농가를 방문해 냉이를 수확하고 지역농업과 농촌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은 도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휴식을 제공하는 행사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대호지농협 등 20여명의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진행했다. (사진=농협중앙회 대전본부 제공)

상상 마케팅스쿨 17기 모집 KT&G, 4월 11일까지

KT&G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천 마케팅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상 마케팅스쿨 17기'를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상상 마케팅스쿨은 2010년에 시작된 대학생 마케팅 교육 및 실천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의 마케팅 역량 제고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과정은 상상유니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마케팅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가자들은 오는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상상 마케팅스쿨 17기는 'Challenger', 'Changer', 'Hackerthon' 세 단계로 구분돼 진행된다. Challenger 단계는 기초과정으로 전문 강사의 과제 수행이 진행된다.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10%인 80명이 두 번째 Changer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최종 16개 팀은 마지막 단계인 Hackerthon에 참여해 경쟁 PT를 진행하며 우수팀에게는 상금이 수여되며 총 상금 규모는 1800만원이다. 이시형 유니브운영부장은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실천 마케팅 경험을 제공하며 미래 세대의 상상력이 사회적 가치로 재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왼쪽)이 협약에 앞서 동 용역 탄 수자원계획·조사센터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베트남에 K-디지털 물관리 기술 전수

수자원공사, 기후위기 대응·물 분야 파트너십 강화 협약 한국수자원공사가 베트남에 K-디지털 물관리 기술 전수에 나섰다. 18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하노이 현지에서 열린 국제 물 컨퍼런스에서 수자원계획·조사센터와 기후위기 대응 물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및 디지털 물관리 기술 협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물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첨단 물관리 기술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분야는 물관리 기술 협력, 베트남 수자원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 지원 등이다. 또한 양 기관은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인공지능 정수장 운영 기술, 스마트 관망 관리 등 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자 실무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윤석대 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의 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제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결과를 얻게 됐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분야 첨단기술 교류를 한층 강화해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간 물 분야 국제협력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ETRI, 자율이동형 협동로봇 SW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모비' 터치펜던트 편리성 인정... 일반인도 활용 가능 목표 ETRI가 세계 3대 디자인 수상대회 중 하나인 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18일 ETRI에 따르면 자율이동형 협동로봇 '모비(MOBY)'의 터치펜던트 SW가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아 'iF 디자인 어워드 2024'의 사용자경험(UX)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모비(MOBY) SW는 ETRI가 뉴로메카, 유승헌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모바일 로봇 기반의 매니퓰레이터 터치펜던트다. ETRI는 터치펜던트(모비 앱) UX 설계와 개발을 담당했다.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러 바퀴형으로 이동이 가능한 모바일 로봇과 작업을 위한 로봇 팔인 매니퓰레이터가 결합된 형태다. 동시에 제어되면서 이동 및 조작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말한다. 모비(MOBY) SW는 모바일로봇과 매니퓰레이터의 이동 및 작업을 동시에 교시할 수 있어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용 터치펜던트를 개발한 사례라 의미가 깊다. 모바일 로봇의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 및 경로 생성, 주행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및 매니퓰레이터의 작업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개발돼 향후 자동화 구현 과정을 효과적으로 간소화할 전망이다.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BT(Behavior Tree)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 작업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다. 동지연 ETRI 로봇·모빌리티 연구실 박사는 "현재 로봇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 사용자 친화적인 터치펜던트를 통해 로봇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ETRI는 해당 기술을 협동로봇 및 모바일 로봇 기반 회사 등에 기술이전해 본격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유수정 기자 sjyoo0327@dailycn.net

HUG, 충북 청주·보은서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8일부터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보은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8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보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충북 청주는 25일부터 27일까지 문화제조장 2층 B구역 회의실서, 충북 보은은 28일부터 29일까지 신한헤센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한다. 한편,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용배 기자 y2k425@dailycn.net

한국타이어 아이온, 우수한 성능 '입증'

티유브이슈드 비교 테스트... 경쟁사 평균치 앞서 한국타이어 아이온이 티유브이슈드 비교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18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티유브이슈드는 1866년 독일서 설립된 글로벌 테스트 기관이다. 한국타이어는 아이온 브랜드 첫 제품인 퍼포먼스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의 티유브이슈드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고 아이온 에보 AS, 아이온 아이센트, 아이온 플렉스클라이프 등 동급 제품들과 주요 성능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특히 아이온 에보 AS는 평가 결과에서 글로벌 경쟁 브랜드 3개로 구성된 비교군 평균치 대비 최대 25%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회전저항, 마른 노면·젖은 노면 제동, 횡방향 젖은 노면 그립, 눈길 제동·핸들링·가속 등 주요 항목에서 경쟁사 평균치를 앞섰다"고 말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정관장, 홍이장군 어린이 댄스대회 연다

4월 15일까지 접수 취 나만의 에너지를 표현한 30초~1분 이내의 춤추는 영상을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어린이가 가족, 선생님과 함께 춤추는 영상도 신청 가능하다. 창의성, 표현력, 완성도를 기준으로 FNC엔터테인먼트 케스트 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5월 2일 결과를 발표한다. 대상 2명 100만원, 최우수상 4명 50만원 등 총 12명에게 580만원 상당의 홍이장군 장학금을 전달하고, 정관장 매장 추천을 통해 접수한 참가자 중 10명에게는 홍이장군상과 홍이장군 제품을 증정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온라인 상장과 홍이장군 단계별 체험 제품, 쿠폰을 제공한다. 대회 접수를 완료한 선착순 100명의 어린이에게는 보조가방, 와펜, 타투스터가 포함된 홍이장군 댄스대회 굿즈도 증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이장군 어린이 댄스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홍이장군 어린이 댄스대회가 나만의 에너지를 즐겁게 발산하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가족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배 기자 y2k425@dailycn.net

새 의자

진영문 제4대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

진영문 거목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사진)가 제4대 한국산림기술인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18일 산림기술인회에 따르면 진 회장은 원광대학교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원광대 산림조경학과 겸임교수, 사방협회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기술인회 전북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현재 거목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북도지회장, 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사업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산림공학·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 24일까지이며 공약으로 내건 업무분장 및 산림청 소통 강화, 지역 산림사업 활성화 기여, 산림사업 개발·발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 회장은 "한국산림기술인회 새 수장으로 당선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앞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기술인회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영 기자 young0425@dailycn.net

한국은행, 29일까지 지역본부 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한국은행이 29일까지 지역본부에서 일할 박사급 연구인력을 채용한다.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조사연구업무 수행할 우수인재를 영입함으로써 지역사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원자격은 한국은행 조사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등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9월 이내)다. 중부권(대전세종충남본부·충북본부·강원본부·강릉본부), 경상권(부산본부·대구경북본부·울산본부·경남본부·포항본부), 전라·제주권(광주전남본부·전북본부·목포본부·제주본부)의 3개 권역 중 택일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채용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수정 기자 sjyoo0327@dailycn.net